

추곡수매가는 가마당 11만 8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수입의 완전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으로 농민을 속이려는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 정부는 90년 추곡수매가 방침을 '수매가 한자리수' '수매량 800만석'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는 쌀의 처리문제' '재정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재벌기업에게는 특별지원 정책을 펴는 등 앞뒤 안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는 평균 20.34% 인상해야 하며, 전량수매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점점 악화의 길로 들어서서 농촌·농민을 위해서 최소한 추곡수매가를 평균 20.34%는 인상해야 하고 전량 수매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을 마련하고서 농촌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민주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서비리등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현정권 아래에서 우리 농촌이 살길은 없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재벌과 결탁한 현 정권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주체적이고 힘있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싸워주는 민주정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농업정책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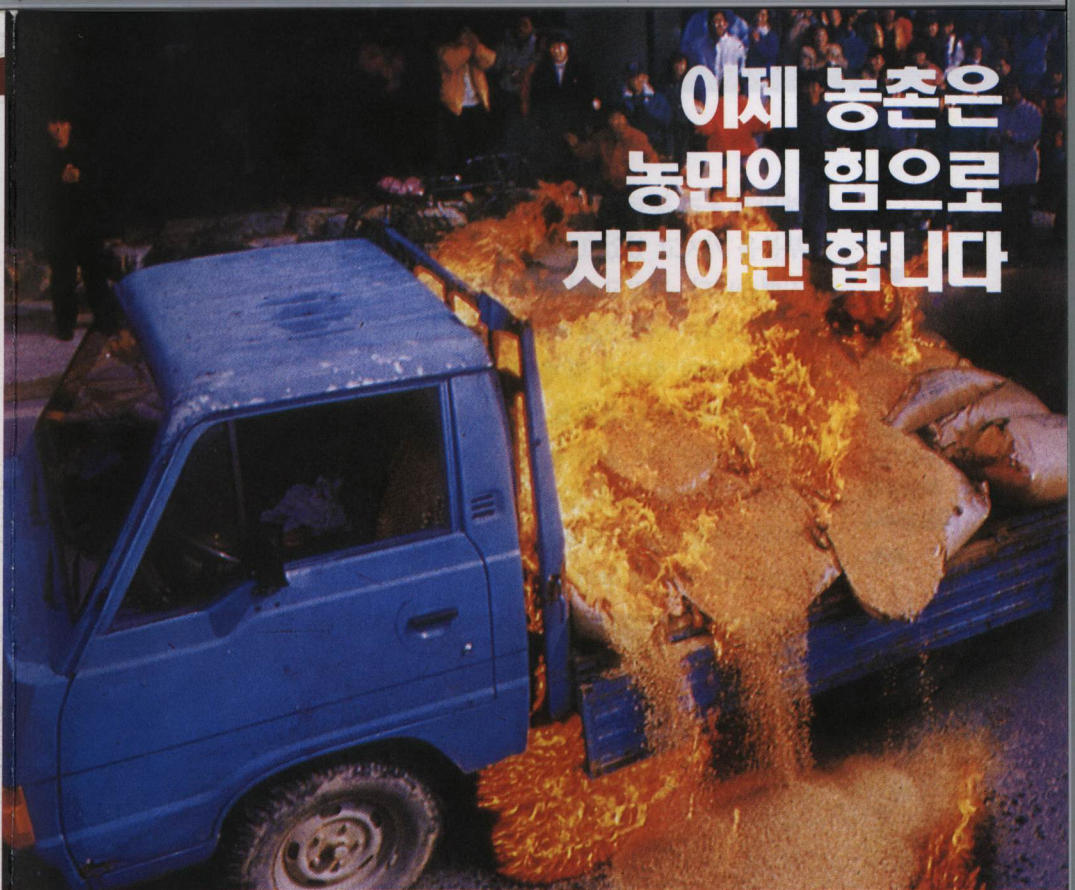
- 첫째 :** 식량자급계획을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 둘째 :** 불필요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관세 및 이익금은 전액 농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산품 수출로 인한 재벌의 이익을 농업지원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 셋째 :** 부채지주의 대토지는 환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 네째 :**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지를 수 있도록 가격과 판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 다섯째 :** 모든 농민이 함께 단결할 수 있는 기구와 권한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농민과 정부가 협상할 수 있고,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농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싸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그만 지으란 말인가”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층무B/D 3F
전화 : 785-0091~5 FAX : 782-9815

민주선전91-A-3

이제 농촌은 농민의 힘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농촌,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 오늘날 이 땅의 농업·농민·농촌은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농업이 더이상 산업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어가고, 우리 농민은 엄청난 빚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농민은 도시인들이 투기를 위해 사들인 땅을 잠시나마 소작해 주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빚과 가난에 못이겨 너도나도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늙으신 부모님들 뿐입니다.
- 그나마 영농에 뜻을 두고 농촌을 지키려는 젊은이마저 결혼조차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45717

“경제개발의 목표를 공업화에 둠에 따라 농업은 천덕꾸러기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해방전 우리 농토는 오랫동안 일본에 부역해온 매국적 친일인사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 소유의 토지마저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미국은 자국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원조라는 이름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들여와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애초부터 헐값에 팔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목표를 공업화에 둠에 따라 농업은 천덕꾸러기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민은 빈곤과 부채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 농촌자체가 모두 쓸려 내려가버릴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농촌을 절름발이로 만든 군사정권

우리나라의 역대 군사쿠테타 정권은 총·칼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시켜야만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정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1968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라고 강요했고, 71년 한해만해도 우리나라는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수입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우리 농촌에서는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콩과 옥수수도 논두렁밭두렁 주변에나 심는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때도 이러한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2·12쿠테타, 5·18광주민중학살 등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비정통성·비합법성·반인륜성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미국은 여러가지 요구를 했고, 농업부문에서는 쇠고기·마늘·분유·담배등의 수입을 개방하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벌들은 공산품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정권과 결탁하여 농산물을 계속 수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국내에 남아도는 농산물을 한국에 팔고, 재벌은 그들의 공산품을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이땅의 농민을 서슴없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정권 역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몽,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황도복숭아, 포도, 키위 등의 수입을 개방하였고, 양담배의 가격을 더욱 낮추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서도 양담배를 팔게하는 등 농민을 짓밟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응하고 있어, 농촌을 완전히 몰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UR 협상이 합의되면 농촌실업자가 급증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세계농업을 지배하는데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합의되면 예전부터 실시되어왔던 추하곡 등 주요농산물 수매정책과 영농자금 융자, 세금 감면등 생산비의 지원, 그리고 상·하한가격과 같은 가격정책등이 모두 폐지되고, 그 밖의 정책들도 앞으로 10년이내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6백 78만 6천명이지만 이중 50세 이상 노년층 인구수는 2백 28만 7천명에 달합니다. 수입완전 자유화는 제일먼저 이들 노년층을 실업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